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봉축위원회, 불기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개최... 봉축 기원탑 점등식·꿈타는 연등회 등 추진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금산사 주지 화평, 탑사 주지 진성)가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이란 주제로 불기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를 마련했다.

연등은 번뇌와 무지의 어두운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한다. 신라시대 때는 간등, 고려시대에는 연등회, 조선시대에는 관등이라 칭하며, 온 나라가 등불을 밝히고 가무를 즐겼다.

이에 봉축위원회는 26일 전주 관내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4월 12일 전주역 미중길 분수대 광장에서 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봉축행사를 다채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계승하면서 시민들의 문화축제 나아가, 능동적으로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의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기획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월 26일 전라감영에서 '꿈타는 연등회'가 열린다. 전북어린이콘서트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포스터 (사생대회), 아미따유스 청소년뮤직 페스티벌 등 경연 행사와 전통문화체험마당, 전통한지등

강습회, 우수팔경단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준비돼 있다. 특히 18시 연등회 봉축법요식에 이어 19시 30분부터는 전라감영에서 한옥마을, 오목대, 다시 전라감영으로 이어지는 거리 연등행진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거리연등행진이 한옥마을에서 진행된다. 봉축위원회에서는 LED한지연등 1천 등, 단주 1천 개 등을 준비해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봉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화평 스님(금산사 주지)은 "지혜와 자비의 자리에 서면 나와 내가 다르지 않고, 탐욕과 어리석음을 뒤로하면 평화와 행복의 길이 열린다"며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을 위해 연등을 밝히자"고 말했다.

한편, 5월 5일 오전 11시에는 금산사를 비롯한 도내 주요 사찰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봉축 대법회가 열린다.

/장은성 기자

봄꽃의 향기를 찾잔 안에 담아내다

국립전주박물관, '꽃다발 꽃차 만들기' 체험행사 내달 5일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봄 계절 체험행사 '꽃다발 꽃차 만들기'를 오는 4월 5일 오후 1시와 오후 4시 세미나실에서 두 차례 진행한다

4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무료체험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화차 당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꽃다발 꽃차 만들기'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꽃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봄꽃을 사용하여 꽃차를 직접 만들어보고 시음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행사이다.

팬지와 산수유, 메리골드, 캐모마일, 허브 등 봄 계절에 피는 식용꽃을 재료로 사용해 뒤음(볶아서 익히는 작업)의 과정을 거친 후 각각의 취향에 맞춰 5~7가지의 꽃을 골라 조합한 후 꽃다발 형태로 묶어 차를 완성하면 마무리된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올해는 계절별 문화 체험행사를 마련, 그 시작을 알리는



봄 행사로 꽃차 만들기를 준비했다"며 "봄꽃들의 조화를 통해 차의 맛과 향을 조절해 봄을 한껏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동문창작소 입주작가 내달 9일까지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4월 9일까지 동문창작소에서 예술 창작 활동을 펼칠 2기 입주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전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속적인 미술 분야 창작 활동이 가능한 작가다. 최종 선정된 작가는 1년간 13평 내의 개인 작업공간과 전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제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http://jcf.or.kr)을 참고하거나 생활문화팀(063-287-2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2023년 문을 연 동문창작소(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94, 삼양대방 3~4층)는 창작공간 9개 실과 공용공간(휴게공간) 1개 실, 간이 수장고 1개 실 등 모두 11개 실로 구성되어 있다.

1기 입주작가들은 지난해 전북예술회관에서 LIFE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회를 30회 이상 성공적으로 열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오는 4월 입주 기간이 끝나는 동문창작소 1기 입주작가들은 "동문창작소의 기운이 좋아 작업과 전시가 잘 풀렸고, 작품 판매 성과도 매우 좋았다"며 "사업의 지속을 바라는 마음에서 재단에 작품을 기증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원도심 문화 확산과 작가 창작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포스터 공개

키워드 '본향의 메아리'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가 2025년 소리축제 공식 포스터 및 키워드를 공개했다.

26일 소리축제에 따르면 먼저, 키워드는 '본향의 메아리(Echoes from the Homeland)'다. 음악은 이주하고 교류하며 인류문화에 다양성을 더한다. 타 지역의 예술 언어를 만나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도 하는 음악의 디아스포라적 속성을 중심에 두고 올해 소리축제는 음악의 이주와 정체성, 향수를 담은 음악 장르, 예술가, 그리고 현대적 재해석에 주목한다. 이는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가진 전북, 한국, 그리고 세계의 음악 유산을 귀하게 여기는 소리축제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지점으로 궁극적으로는 본향과 타향 사이 음악을 구성해 내는 공동체의 창조성을 환기하게 될 것이다.

이어 포스터는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올해 축제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담아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소리축제의 브랜딩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디자인의 맥락과 연결성을 갖고 3개년 작업으로 진행해왔다.

올해는 키워드의 의미를 담아 디아스포라적 속성을 소리와 연결해 상징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는 본향(뿌리)으로부터 뻗어나간 소리의 기억과 새롭고 다양하게 창조된 소리의 조각들이 전주와 전주세계소리축제로 모여 희망의 나무(축제의 나무)를 만들고, 이 나무를 중심으로 소리의 깊은 울림이 전 세계의 다양한 사



람들에게 공명하듯이 다시 확산되어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두 가지 버전으로 디자인된 포스터 안에 담긴 다채로운 색상은 소리의 다양성을 담아냈다.

김희선 집행위원장은 "올해 소리축제는 '본향의 메아리'를 키워드로 삼아 근원이 되는 음악의 뿌리부터 이주와 교류를 통해 변주되고 창조된 음악들, 디아스포라 예술가 등에 주목해 다양하고 독창적인 음악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역과 문화적 뿌리 그리고 본질에 바탕을 둔 음악의 다양성과 창조성이 보여주는 음악적 가치와 깊은 울림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마스터즈 섹션 상영작 공개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마스터즈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마스터즈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개척하며 영화 문화를 창조해 온 거장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섹션이다.

이에 따르면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마스터즈 섹션에서는 15편(장편 9편, 단편 6편)의 영화가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올해는 잘 알려진 거장들뿐만 아니라 숨은 거장의 신작 발굴에 힘썼다.

문성욱 프로그램머는 "이번 마스터즈 섹션은 작금의 시대에 전주국제영화제가 영화제 역할에 대한 답을 하는 행위이자 영화제의 방향성 제시이기도 하다"며 "다이아몬드를 캐는 광부의 마음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객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더 알려져야 할, 장인들의 영화를 소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 영화거리(거리)를 비롯한 전주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목요 상설공연 '광한루원 음악회' 4월부터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남원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광한루원 완월정에서 목요 상설공연 '2025 광한루원 음악회'를 오는 4월부터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광한루의 운치와 국악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기악 독주곡 산조로 시작해 남원을 대표하는 판소리 춘향가가 이어지고, 이어지는 남도 민요 무대는 전통의 멋을 한층 더해 고운 자태의 민속무용과 신명나는 사물놀이가 약 50분 동안 펼쳐진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몽선 형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